

7가지 보물로
열어가는 고창 이야기

GOCHANG!
CULTURE A READING WINDOW

2025 봄과 여름
고창!

문화를 읽는 창





제단 고창문화관광재단

소식지 <고창! 문화를 읽는 창>은

우리 지역의 문화를 함께 그려나가는 새로운 창(窓)을 말합니다.

지역의 다양한 문화이슈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새로 쓰는 고창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봄과 여름

고창!

문화를 읽는 창

발행일 2025년 7월 25일

발행처 (재)고창문화관광재단

발행인 심덕섭

편집인 조창환

기획 이창섭

사진 고창문화관광재단

인쇄 (주)고려디자인

등록일 2020년 07월 21일

등록번호 제고창-바-00100호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태봉로 361 전북대 고창캠퍼스
문화관 2층

전화 063)561-1110

홈페이지 www.gctf.or.kr

ISSN 2733-9971

관점

06 고창, 신들린
판소리의 고장

10 고창갯벌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인류의 터전

대화

16 문화예술과 관광이 공존하는 고창,
그 중심에서 역할을 다하다
고창문화관광재단 조창환 상임이사

20 제17대 고창문화원 이현곤 원장이
꿈꾸는 고창의 문화 지도
고창문화원 이현곤 원장

발견

24 친구와 함께한
고창 스탬프 투어

27 제4회 GOOUT
SUPER HIKING 참가 후기

30 초록빛 치유, 고창한밤 여행기
지원금으로 떠난 1박 2일의 쉼

서해랑길 41,42코스에서 즐기는
특별한 하이킹 프로그램



소식

33 지역 공간을 소개합니다

선운미디어갤러리, 품, 고창 서해랑 쉼터, 둘빛마루, 치유문화 놀이터, 고창동학
농민혁명기념관

36 2025 고창문화관광재단 업무협약

상하농원, 고창 보건소, 석정웰파크
요양병원, 공주문화관광재단, 청년단체

38 동리시네마 문화마실

문화소외계층과 함께하는
따뜻한 영화 여행

40 7가지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품은 고창의 특별한 문화예술배움터

고창문화예술배움터 X
세계유산 워킹그룹 '그리고'

42 고창 전통예술체험마을에서 만난 특별한 공예 이야기

2025 공예주간 '인생공예, 일상공예'

46 라벤더 향기에 울려 퍼진 팝페라의 선율

고창문화관광재단 세계유산음악산책

49 마음충전 버스킹

우리의 일상을 예술로 채우는 시간



제 12호
표지이야기

2025 공예주간 '인생공예, 일상공예'
행사 현장. 5월22일부터 25일까지
고창군 전통예술체험마을에서 진행
된 이번 행사는 전통 한옥을 배경으로
공예 체험, 전시, 마켓 등 다양한 프로
그램을 선보였다. 한복을 입고 참여한
관람객들이 행사를 둘러보는 모습
이다.

고창, 세계 속의 보물을 품다

유네스코 7대 유산과 함께하는
문화관광도시 고창의 여름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고창문화관광재단 이사장입니다.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고창문화관광재단 소식지 제12호를 통해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고창은 유네스코가 인정한 7가지 보물을 간직한 특별한 고장입니다. 세계자연유산인 고창갯벌,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 무형문화유산인 판소리와 농악, 세계기록유산인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그리고 고창군 전 지역이 지정된 생물권보전지역, 천마봉과 운곡습지를 비롯한 13개 지역의 세계지질공원까지, 이 모든 유산들은 우리 고창이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2025년 고창문화관광재단은 문화향유기회 증진, 문화관광 참여자 확대, 군민만족 경영 실현이라는 경영목표 아래 더욱 다양하고 풍성한 문화 콘텐츠와 관광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치유문화도시 고창 문화자생력 확보, 고창형 전략적 문화관광 활성화, 혁신기반 안정적인 기관 운영이라는 3대 전략방향을 중심으로 지역의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재단에서는 여러분께 의미 있는 사업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고창 서해랑길 및 지역관광자원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고창의 자연과 문화를 연결하는 새로운 관광 코스를 제공하고, '고창 ON7 스템프 투어'를



통해 방문객들이 유네스코 7가지 보물을 체계적으로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고창한밤’ 사업을 통해 고창을 찾아 1박 이상 숙박하시는 관외 관광객분들께 여행경비를 지원하여, 더 많은 분들이 고창의 깊은 매력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새롭게 조성된 거점공간과 선운미디어아트센터 등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공간을 통해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새로운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고창의 유네스코 7가지 보물을 더욱 널리 알리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문화적 자긍심과 경제적 활력을, 방문객들에게는 소중한 추억을 선사하고자 합니다.

고창문화관광재단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함께 발전해 나가는 동반자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창의 문화와 관광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7월
고창문화관광재단 이사장



〈신재효 판소리공원〉

고창, 신들린 판소리의 고장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는, 다른 아닌 사람이 내는 소리라는 말이 있다. 사람의 소리가 가장 귀하다. 특히 판소리는 사람이 낼 수 있는 소리 중에서도 최고의 경지를 추구한다. 수백 년을 이어온 감동과 이야기가 있는 그 신들린 소리의 고장, 고창으로 떠난다.

판소리의 고향 동리정사(桐里亭舍)

전북은 곳곳이 판소리의 성지이다. 어느 곳을 가더라도 판소리와 연이 없는 곳은 없다. 그중 판소리의 탄생에서 중흥에 이르기까지 남다른 역할을 해왔던 예향이 바로 고창이다.

고창읍성 매표소 입구에는, 판소리가 고창을 무대로 생장해왔다는 것을 단박에 알 수 있는 조선 후기 고택이 한 채 자리하고 있다. 판소리의 아버지라 불리는 동리(桐里) 신재효(申在孝, 1812~1884)가 명창들을 불러 모아 이론을 강론하던, 이른바 '신재효 고택'이다.

집은 그 집에 사는 사람의 얼굴을 닮는다고 했던가. 뒤로는 석가산이 있고, 마당으로는 수로가 흘러 꽈운치가 있었다고 하는 이 집의 이름은 동리정사(桐里亭舍). 현대 판소리의 고향인 신재효의 옛집으로서의 고졸한 멋과 가치가 느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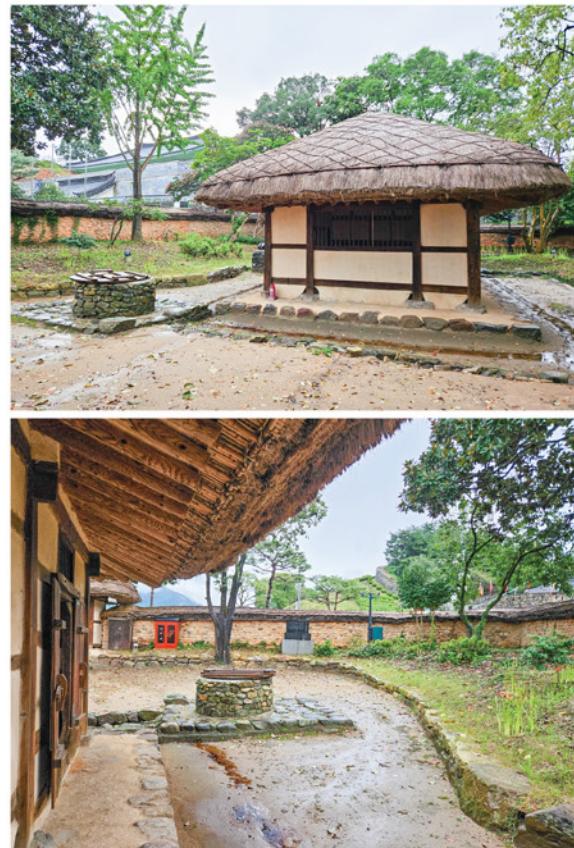
신재효는 이 집에서 말년까지 살면서 노래청을 두어 명창들을 불러 모으고, 많은 제자를 길러냈다. 그리고 그 자신은 판소리 여섯 마당의 가사를 정리하고 이론을 세웠다. 한마디로 동리정사는, 판소리를 사랑한 한 인물이 어떻게 그 예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후대에 남길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산증인 같은 곳이다.

소리를 가르치고 배우려는 이들로 언제나 뜨거웠을 동리정사. 당시에는 안채를 포함한 크고 작은 여러 채의 건물들로 대저택을 이루었다고 한다. 국가 중요 민속자료 제39호로 지정되기 전까지 고창 경찰서 부속 건물로 쓰인 걸로 보아, 지금의 건물은 많이 개조되고 변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특징적인 것은, 원래 집의 기둥이 원과 사각이 섞여 있었다는 것. 그만큼 신재효가 명창들을 아끼는 마음이 집에 녹아들어 원기둥을 세운 게 아니었을까 싶다. 그런데 암행어사의 요청이 있어 신분에 맞게 집을 낮추고, 뒷기둥을 격이 낮은 사각으로 바꿨다는 얘기가 전한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사랑채만 아담하니 남아 있는 상황이다. 마당 한켠의 오동나무 한 그루와 우물이 그 세월을 지키고 있다.

고창 동편제의 비조 동리(桐里) 신재효

땅심이 좋고 지기가 강하면 큰 인물이 난다는 얘기가 있다. 예로부터 호남의 삼신산 중 하나인 방장산의 기맥을 받아 인물의 고장으로 정평이 난 곳이 바로 고창이다.



〈신재효 고택〉

고창이 낳은 많은 인물들 중에서도, 판소리문학의 이론가이자 광대의 지휘자라는 평을 듣고 있는 신재효를 빼놓을 수 없다. 조선말, 판소리가 활짝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은 신재효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할 만큼 그의 입지는 남다르다. 일찍이 신재효를 일러 시조 시인 가람(嘉藍) 이병기(1891~1968)는, “해 뜨는 나라 한국에는 신재효가 있고, 해 지는 나라 영국에는 셰익스피어가 있다”라고 말했을 정도다.

그러나 당대 최고의 판소리 학자였던 신재효는, 애초 소리꾼이 아닌 중인 출신이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 받은 부를 기반으로 집안을 번성시키면서 판소리를 집대성하여 국문학사에 뛰어난 족적을 남겼던 것. 아전이었음에도 신분적 한계를 뛰어 넘어 자신을 버려야

만 얻을 수 있는 신의 소리, 즉 판소리에 남다른 애정을 쏟았던 것이다.

신재효는 12마당의 판소리를 죽을 때까지 춘향가, 심청가, 박타령, 가루지기타령, 토끼타령, 적벽가 등 여섯 마당으로 정리한 인물로도 유명하다. 일정한 체계나 순서 없이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온 판소리 사설을 처음으로 문자로 기록했던 것이다. 또한, 판소리 사설의 체계를 잡아 개작하고 통일시킴으로써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의 경계를 그었다.

더 놀라운 일은, 조선 최초의 여류명창을 배출해냈다는 것. 서민예술로 하대 받던 판소리의 지위를 고급 예술로 승화시켜 수많은 판소리 거장들을 길러내기도 했다. 오죽하면 ‘고창 신재효 문하를 거치지 않고는 어전광대가 될 수 없다’는 말까지 생겨났을까 싶다. 19세기 후반의 격변기에 고창이 판소리 자각변동의 핵으로 작용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일 것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 고창은 동편제의 새로운 거점이 될 수 있었다. 신재효를 동편제 중에서도 고창 소리의 비조로 꼽는 이유다. 나아가, 고창은 마땅히 소리의 고장이라는 타이틀 하나를 더 거머쥘 수 있게 되었다.

신재효와 진채선의 사랑 이야기가 담긴 「도리화가(桃李花歌)」

김종필 감독의 영화 「도리화가」가 개봉된 것은 지난 2015년. 영화를 통해 실존인물로 분한 조선 최초의 판소리 대가 신재효와 함께 판소리는 크게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진채선(1842~)은 신재효와 같은 고창 출신이다. 무당인 어머니를 따라다니며 소리를 배우다가, 17세 때 신재효 문하에 들었다. 그곳에서 명창 김세종으로부터 소리를 배우고, 가곡은 물론 춤까지 사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진채선은 1867년 흥선대원군에 의해 경복궁 낙성 축하연에 불려 나가 돌아오지 못했다. 그때 그녀의 나이 21세였다.

신재효 또한 진채선의 스승 자격으로 운현궁으로 불려가 오위장(五衛將)이라는 벼슬을 지냈으나, 이내 곧 고창으로 내려오게 된다. 그리고 판소리를 통해 예술적 교감을 이루었던 제자 진채선에 대한 그리움과 애틋한 마음을 담아 판소리 단가 ‘도리화가(桃李花歌)’를 지어 불렀다. 신재효의 나이 59세의 일이다.

‘스물네 번 바람 불어 만화방창 봄이 되니 / 구경 가세 구경 가세 도리화 구경 가세…’

서로 사랑한다는 말 한 마디 주고받지 못한 은근한 사랑이 녹아 있는 도리화가. 단가는 영화로까지 만들어져 지금까지 감동을 주고 있다.



봉황을 닮은 고창 출신 여류명창들

신재효는 그가 지은 「자서가(自序歌)」에 ‘벽오동’이라 이름자를 남길 정도로 오동나무를 좋아했다. 아호를 ‘오동나무 마을’을 뜻하는 ‘동리(桐里)’라 지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동리정사 사랑채 대문의 방향도 방장산 벽오봉을 향하게 하고, 정사 안에는 오동나무를 심어 그의 각별한 오동나무 사랑을 표현했다.

오동나무는 고대 동양철학과 상징, 문학적 이미지로 많이 등장한다. ‘봉황은 오동나무에 깃들고, 대나무 열매를 먹으며, 맑은 물을 마신다’는 전설도 있지 않던가. 신재효는 봉황 같은 소리 천재들을 키워내고자 하는 마음을 그렇게나마 스스로 지켜가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신재효의 지침을 받아 음률과 가무에 능하고, 판소리를 특출나게 잘했던 진채선을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1964년에는 여류명창들이 대거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보유자로 지정될 수 있었던 것도 신재효의 영향이 크다. 그들 중 김여란과 김소희가 고창 출신이다.

홍덕에서 출생한 김소희(1917~1995)는 15세의 나이에 ‘제1회 춘향제전 명창대회’에서 장원을 차지할 만큼 소리를 잘했다. ‘진채선이 조선 최초의 여류명창이고 이화중선이 판소리의 여왕이라면, 김소희는 하늘이 내린 소리를 가진 명창’이라는 말로 회자될 정도였다.

특히, 남자의 전유물로 인식되던 판소리를 여자에게 맞는 소리로 개발하여 판소리를 여자 명창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로 끌어올렸다.



그로써, 그녀는 죽을 때까지 국악계의 큰 별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고창소리의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

2003년, 판소리사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는다. 판소리가 세계유네스코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결작’으로 선정되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문화 유산이 된 것이다.

변화가 찾아올 때는 항상 고창 출신의 소리꾼들이 앞장섰다고 한다. 1960년대, 판소리가 사멸지경에 이르렀을 때도 그들의 창조적인 노력과 결실은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그 땀방울은 고창군이 고창 판소리의 역사적 가치를 인식하는 데 충분한 마중물이 되어주었다.

나아가, 고창의 정체성을 지닌 고유한 소리를 찾아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전승하기 위한 노력이 더해지고 있다. 근대 판소리의 중심, 동편제 판소리 또 하나의 거점, 여류명창의 산실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고창소리의 더욱 큰 가치를 유지해가기 위함이다. 고창에 가면 판소리가 현실이 되는 이유일 것이다.

글 김형미 사진 고창군

고창갯벌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인류의 터전

예로부터 산과 들, 바다, 갯벌로 풍요로움을 자랑하는 고창. 그중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천혜의 자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고창갯벌은, 고창하면 어디든 따라붙는 ‘최고’라는 수식어가 무색하지 않게 해준다. 다양한 생물과 자연, 사람의 이야기가 겹들여져 언제든 가까이 다가들고 싶게 만드는 축복의 땅. 퍼내도 퍼내도 마르지 않는 무궁무진한 인류의 보고를 지금, 만나러 간다.





살아 있는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

2021년, 고창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 되었다. 충남 서천갯벌, 전남 보성·순천갯벌과 함께 생물학적 다양성을 보전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된 것이다.

이로써 고창군은 자연유산인 고창갯벌과 더불어 문화유산 고인돌 유적, 인류무형문화유산 판소리와 농악, 기록유산 동학농민혁명 기록, 지질공원, 생물권 보전지역 등 국내 유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7개의 보물을 간직한 도시로 당당히 자리를 굳힐 수 있게 되었다.

고창갯벌은 고창군과 부안군 사이의 곰소만에 위치해 있다. 흥덕면과 부안면, 심원면, 해리면, 상하면의 5개 면에 걸쳐 자그마치 60km^2 가 넘는 구역에 넓게 분포되어 있다. 서해의 다른 갯벌들처럼 장벽섬이 없어 겨울에는 강한 파도가 모래판을 만들고, 여름에는 조류가 파도를 억누르면서 갯벌이 확장된 것이다.

이 갯벌들은 세계적으로 매우 특이한 지형을 이루고 있다. 해안선을 따라 자갈과 모래, 조개껍질 등이 쌓여 이룬 언덕, 쉐니어(Chener)로 인해서다. 이는 바닷물에도 잘 잠기지 않아 철새들에게는 맞춤한 휴식처가 되어왔다.

곰소만의 바다와 하구가 만나 독특한 생태계를 보여주기도 한다. 펄갯벌, 혼합갯벌, 모래갯벌, 바위갯벌이 조화를 이루어 한 곳에서 다양한 갯벌을 경험해볼 수 있는 것이다.

발이 푹푹 빠져 못 나오는 일반적인 갯벌과는 달리, 약 5km 이상을 갯벌 위를 걸어 다니거나 트랙터를 이용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바위갯벌이 펼쳐지는 소죽도와 대죽도 한 쌍의 섬 위로 지는 석양은 언제 봐도 아름답다. 보고 있으면, 이 세상 것 같지 않은 붉은 빛깔 속에 빠져 당최 일어나기 싫어진다.



〈쉐니어〉



신비한 고창갯벌의 생태와 환경

매년 겨울, 많은 철새들이 고창갯벌을 찾는다. 그중 큰뒷부리도요새와 붉은어깨도요새는 전 세계에서 가장 긴 거리를 쉬지 않고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붉은어깨도요새는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우리나라 서해안 갯벌까지 6,000km 이상을 멈추지 않고 날아온다고 한다.

멸종위기종인 황새의 국내 최대 월동지로도 유명하다.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국내 5개 지역 중, 가장 많은 수의 황새가 겨울이면 고창갯벌로 날아들어 장관을 이루는 것이다.

고창갯벌은 자연이 기른 천혜의 농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약 255종이나 되는 저서생물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모두 바지락과 동죽이 서식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되어준다. 살아 있는 화석으로 알려진 개맛이며, 황해 고유종으로 전 세계 1종 1속만이 존재하는 범계의 주요 서식지로도 정평이 나 있다.



〈검은머리물떼새〉

밀물과 썰물이 반복되는 동안, 다양한 해양생물의 터전이자 지구 생태계의 축이 되는 곳. 고창갯벌은 멸종위기종과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갯벌이 얼마나 잘 보존되고 있는지를 증명해주고 있다.

지난 2007년에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각종 개발사업으로부터 훼손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어 2010년에는, 연안습지 중 가장 큰 규모인 4,060ha에 달하는 면적이 람사르 습지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2021년, 세계자연유산이 됨으로써 세계인이 보존해 나가야 할 소중한 유산으로 자리매김했다.





갯벌의 가치를 지켜온 해외 나라들



고창갯벌은 최근 그 중요성이 날로 커가고 있다. 인근의 새만금 갯벌이 사라짐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남아 있는 가장 큰 갯벌이 되었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1980년대부터 갯벌의 가치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독일은 간척사업을 법으로 금지했고, 일본과 미국 등지에서도 매년 간척사업으로 사라진 갯벌을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1987년부터 2005년까지 653.3 km²의 갯벌을 없앴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77배를 웃도는 생태계의 보고가 사라진 셈이다. 결국 1987년 3,203km²에 달했던 전국 갯벌 면적은 현재 2,443km² 정도로 줄어들게 되었다.

고창갯벌은 심원갯벌, 하전갯벌, 장호갯벌, 만돌갯벌 등 각 지역마다 고유한 개성을 가지고 있어 돌아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또 갯벌의 아름다움과 그 안에 깃든 놀라운 생명력을 보면,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가치에 대해 다시금 돌아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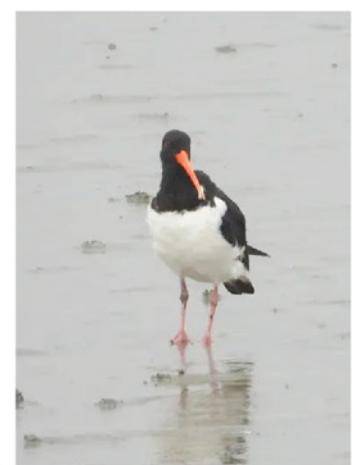
고창갯벌과 사람, 그리고 축제

갯벌의 생산성은 육지에 비해 9배나 높다고 한다. 갯벌의 어류 생산성은 에이커 당 10톤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갯벌에 펼쳐지는 염생식물 초원지의 생산성만 봐도 쌀이나 밀, 감자 경작지보다 훨씬 높다.

그런 면에서 고창갯벌은, 지역경제의 핵심이자 친환경 생태관광 자원으로 월등한 평가를 받아왔다. 자체 만으로도 생태와 경제가 만나는, 살아 있는 기반 시설이라는 말이 빈 말이 아닌 것이다.

이에 고창군은 자연 보전뿐만 아니라, 친환경 생태관광 산업을 활성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유발 하는 데 더욱 심혈을 기울여왔다.

지난 4월에 개최된 ‘고창갯벌 빅버드 레이스’는, 말 그대로 희귀 조류를 관찰하는 대회이다. 고창갯벌의 생물 다양성을 확인하고, 갯벌 보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검은머리물떼새〉

올해로 벌써 4회째를 맞은 이 대회에는 국내 외 36개 팀, 130여 명의 탐조인이 참가해 고창갯벌의 철새를 관찰하고 기록함으로써, 고창갯벌을 세계적으로 알리는데 큰 기여를 했다.

특별 강연 ‘고창갯벌에 사는 황새 이야기’에 이어 고창군 전역을 무대로 펼쳐진 탐조 활동, 갯벌과 철새를 주제로 한 전시·체험 부스 운영 등을 통해서도 고창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는 평가다.

해마다 5월이면 바지락 축제도 개최된다. 올해 열린 ‘제8회 하전 바지락 오감체험 페스티벌’에는 무려 3만 여 명의 방문객을 기록하며 그 명성을 다졌다.

페스티벌이 열리는 10km의 해안선과 1200여ha에 달하는 심원면 하전갯벌마을의 광활한 갯벌은 보고만 있어도 가슴이 탁 특인다. 연간 4천 톤의 바지락을 생산하는 국내 최대 바지락 생산지로서의 명성이 그대로 전달되는 느낌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바지락의 약 40%가 이곳에서 생산된다고 한다. 어촌계 인근에 모래갯벌이 발달되어 있어 바지락 서식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다. 때문에 어민들에게도 소중한 삶의 터전이 될 수 있었다.

오는 6월에는 고창갯벌을 온몸으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2025 고창갯벌축제’도 개최된다. ‘고창갯벌길 건강 걷기대회’, ‘고창 갯벌 가요제’, ‘갯벌 K-POP 댄스 경연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축제에서 먹거리를 빼놓을 수는 없다. 볼 것 많고 먹을 것 많은 고창이니만큼, 고창에서만 맛볼 수 있는 다채로운 수산물 특화 먹거리 코너와 고창 대표 특산물인 풍천장어를 시식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고창갯벌은 그 생태적 가치와 기능, 독특한 자연경관, 갯벌자원이 풍부하여 그 자체만으로도 보물창고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이제는 주민들과 함께 다 같이 보전해 나가야 할 공생과 희망의 공간이 된 것이다.

람사르고창갯벌센터는 지난 2016년부터 고창 생태관광의 중요한 거점이 되어왔다. 자연환경을 온전히 보호하면서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이 생태 관광이다. 센터는 갯벌을 찾는 이들에게 생태의 소중함을 교육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7가지 보물 찾고 선물 받고’ 설렘으로 고창 ON!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이 많은 고창. 가는 곳마다 호기심이 이는 건 당연지사다.

고창문화관광재단은 지난 4월부터 7가지 보물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고 스템프를 모으는 ‘고창 ON 7 스템프 투어’를 추진 중에 있다.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유산을 보다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스탬프 투어는 ‘7가지 보물 찾고 선물 받고’ 설렘이 가득해서 벌써부터 인기 만점이다.

또, 6월에는 이야기꾼과 함께 고창의 7가지 보물 이야기 속으로 풍덩 빠져볼 수 있다. ‘고창 여행 With 고창 생물권 스토리텔러’가 시작되는 것이다.

아무리 위대한 유산도 그 속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법. 올 여름은 스토리텔링을 통해 고창의 숨은 가치를 한아름 챙겨보는 것은 어떨까.

글 김형미 사진 람사르고창갯벌센터



문화예술과 관광이
공존하는 고창,
그 중심에서
역할을 다하다

조 창 환 문학박사

고창문화관광재단 상임이사



Q. 고창문화관광재단은 지난 2019년 설립 이후, 고창의 문화예술 발전과 관광을 위해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창문화관광재단은 재단과 문화도시센터가 하나로 어우러져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재단이 설립된 지는 그리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출범 이후 꾸준히 성장하며 지역 문화와 관광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지역 주민의 문화 활동 지원 및 인력 양성, 문화 향유 및 가치 확산, 문화정책 연구 및 환경 조성, 문화 자원 발굴 및 활용, 동리시네마 운영, 관광 프로그램 개발 운영, 홍보 마케팅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지역 문화관광의 역량을 높여가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성장은 끊임없는 혁신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머무름 없이 지역 내 많은 기관들과 협력하며 꾸준히 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Q. 상임이사님께서는 그동안 문화예술계 전반에 걸쳐 다양한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고창문화관광재단을 맡게 되신 배경과 그 소감이 궁금합니다.

고창은 타지역에 비해 유난히 많은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한 지역입니다. 그만큼 천혜의 자연과 깊은 역사, 특색 있는 문화예술 자산이 많은 지역이기도 하지요. 그 자산을 활용해서 조금만 신경 쓰면 얼마든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 좋은 기회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문학박사·대학교수·사진예술·박물관 관장 등 다양한 문화예술 영역에서 활동해온 저의 이력이 더욱 의미 있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아 자리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재단의 대표로서 책임이 막중하다 보니,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동시에, 고창이 가진 문화적 잠재력을 현실로 꽂피울 수 있다는 점에서 설렘도 있습니다. 저 자신이 고창군 문화관광의 새로운 동력이 되어 서두르지 않고 지역의 정서에 부응하며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고창읍성〉



Q. 고창문화관광재단을 운영하는 데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가요?

재단은 군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증진’, ‘문화관광 참여자 확대’, ‘군민만족 경영 실현’이라는 세 가지 경영목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몇 가지 전략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치유문화도시 고창’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문화 자생력 확보, 둘째는 고창만의 특색을 살린 전략적 문화관광 활성화, 셋째는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혁신 기반의 안정적인 기관 운영입니다.

무엇보다,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관광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행사나 콘텐츠 기획에 그치지 않고, 지역문화와 관광이 상호 보완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해 가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미당시문학관〉

Q. 최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프로젝트가 있다면 소개 바랍니다.

지역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스토리텔링 기반 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키는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고창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부터 동학농민혁명 등 스토리의 보고라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어떤 논리적인 설명보다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뛰어난 자원이라 할지라도 스토리텔링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중요성을 한눈에 파악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고창의 자원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정체성과 가치를 문화적 콘텐츠로 어떻게 재해석하고, 또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재단에서 권장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2가지 있습니다. 바로 고창농악과 판소리인데요. 둘 다 세계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스토리텔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후대에 계승·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밖에도 고창 하면 떠오르는 고창 7가지 보물 스템프투어, 고창한밤, 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 등의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7대 보물과 고창의 다양한 유·무형 자산이 디지털 미디어로 구현된 선운미디어갤러리, 무형유산과 전통 예술을 한자리에서 체험하고 전시할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인 전통예술체험마을도 꼼꼼히 준비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창 전통예술체험마을〉

Q. 고창문화관광재단이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또는 비전은 무엇인가요?

고창을 흔히 인물의 고장이라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친 정치인, 관료, 문인, 예술인들이 즐비합니다. 군단위임에도 향교가 3개나 있는 것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입니다. 이러한 특색이 담긴 기존 문화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존·유지·계승시켜 후대에 넘겨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역사를 중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못지않게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연구·발전시켜 나가는 일도 재단이 해야 하는 일이에요. 100년 후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화를 발굴하는 거죠. 가까이는 10년 또는 50년 후를 위해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끊임없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당장은 학술대회를 통해 고창의 문화유산을 세계문화 유산으로 등재시키고 알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관심을 가지고 노력 중에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고창의 문화가 주민들의 삶의 일부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 주도의 문화에서 벗어나야 해요. 다 같이 지역민이 주체가 되는 문화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할 계획입니다.

Q. 마지막으로 고창군민 및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인간적 삶을 가장 인간답게 하는 것이야말로 문화 예술이 아닐까 합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삶의 질이 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단은 문화와 관광을 융합해 꽂피우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서 지역민의 삶의 격조와 품격을 갖추어 나갈 것입니다. 모두 함께 우리 고창의 문화·예술·관광의 가치를 발견하고, 또 나눌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고창다움’을 이루는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운사〉

제17대 고창문화원 이현곤 원장이

꿈꾸는 고창의
문화 지도

이 현 곤 원장
고창문화원



**Q.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문화'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제17대 고창문화원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고창 문화의 현재와 미래를 이어갈 수장
으로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고창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고향이라는 말만 들어도 울컥하는 이곳에서 일 평생 문학, 미술, 음악, 공연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20대 때인 1989년에는 한국미술협회 고창지부를 창립했는데, 그것을 발판으로 한국예총 고창지부도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 힘을 동력 삼아 임기 동안 지역 문화예술의 틀을 굳건히 다져 가려 합니다. 이것이 지난 수십 년간 지역 문화의 중추 역할을 해온 고창문화원장의 직책에 대한 소명이자, 보답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Q. 고창문화원은 1963년에 설립되었어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었는데요. 고창문화원에 대한 자세한 소개 바랍니다.

네. 고창문화원은 타 지역보다 설립 시기가 빠릅니다. 1968년에는 박정희 대통령 고창 방문과 함께 숙원 사업이었던 문화원이 건립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조선 후기 판소리 이론가였던 동리(桐里) 신재효 발굴, 고창 모양성재, 고창 오거리 당산재, 동백연(冬栢燕) 등 고창만이 가진 문화 정체성을 빨리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현재 문화원 회원 수는 700여 명에 달하는데요. 그만큼 교육 프로그램도 다양화되어 30여 개의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문화 자원을 발굴하고, 전통과 현대의 문화를 아울러 지역주민의 문화복지를 실현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Q. 문화원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군민들의 기대
가 높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싶으신가
요?**

문화를 정의하자면, '삶의 흔적'입니다. 자연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문화라고는 하지 않듯이, 선조들의 삶을 체험을 통해 담습하고 복습하여 계승하고 발전 시켜 후대에 남겨야 하는 것이 문화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문화라는 말도 많이 변질되어 세상 사람들이 모든 분야에 '문화'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치 문화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문화라는 말만 붙인다고 다 문화가 되는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문화의 단절은 곧 역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문화원장이 할 일은 전통을 고수하고 발전시켜 후대에 잘 넘겨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련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몫이자 의무라고 봅니다.

Q. 운영 과정에서 예상되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문화원은 군민들의 일상생활이 녹아 있는 삶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 배치를 통해 조직의 체계를 정비하고, 문화기획 역량을 강화하여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예산 확보가 가장 큰 난제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전문 기획자 한 명을 두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각 분야마다 문화 전문성을 갖춘 자문 기능의 부재도 절실한 문제입니다.

물론, 언제까지 행정 예산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자체 수익사업과 후원회 조직, 콘텐츠 수익화 등 다방면으로 방안들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문화원이 단순히 행정지원을 받는 기관이 아닌, 군민에게 희망을 주고 신뢰를 받는 주체로서 자리 잡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Q. 현재 추진 중에 있거나,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신가요?

하루이틀 사이에 끝날 일은 아닙니다만, 여력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진행 중인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음각어문편병의 산지 결정을 위해 학술대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각어문편병은 15세기 중후반 고창 용산리 가마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국보 제178호 분청사기입니다. 학술대회를 통해 산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고창 도자문화유산을 지켜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신재효 선생의 제자이자 고창이 낳은 진채선 명창의 어머니를 찾아가는 작업입니다. 영화『도리화가(挑李花歌)』를 보면, 진채선의 어머니인 진봉선이 잠깐 언급됩니다. 그 어머니를 통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진채선에 대해 좀 더 알아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세 번째, 1959년도부터 고창문화동호회원들이 원고지에 친필로 쓴 시편들이 희귀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시편들을 엮은 책이 발간된 바 있으나, 그 또한 등사기로 제작하던 시절의 것이라 데이터 정리가 시급합니다. 고창 군민들의 삶의 흔적이 담긴 소중한 지역문화자산으로서 보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미당(米堂) 서정주의 재조명입니다. 현재 문화원에 미발표 시 「국민의 노래」가 친필로 남아 있으나, 아직까지 밖으로 내보이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정주가 친일 행위로 지탄받고는 있지만, 싫다고 버리는 일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 역시 고창이 안고 감당해 나가야 할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문학사에 남긴 그의 행적 전체가 매도되고 평가절하된 부분에 대해 이제는 고창 군민 모두 깊이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Q. 원장님께서는 오랜 기간 청소년 교육에도 힘 써오셨는데요,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요?

청소년은 단순히 교육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 나가야 할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고창에는 도덕이나 음악, 미술 등의 교육은 물론 시설 또한 부족한 상황입니다. 기존의 시설들도 어른들의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들과 아직 발굴되지 않은 지역문화유산을 찾아 소통해 나가고 싶습니다. 청소년과 함께하는 고창 문화유산 체험, 문화학교 프로그램인 문화유적 답사 등은 그동안 제가 여러 활동을 통해 실천해온 경험을 고창문화발전과 연계해 나가고자 합니다.

Q. 마지막으로 고창군민과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내적으로는 고창문화원 자문위원회를 통해 지역문화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문화원만의 활동 중 하나인 지역학연구로 '고창학연구소'를 통해 지역연구 성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봤으면 합니다. 위대한 이름보다는 우리 삶의 진솔한 이야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진솔함을 후대가 본받아 우리가 남기는 진솔한 문화를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가치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구와 함께한 고창 스탬프 투어

힐링과 역사를 함께 느낄 수 있는
유네스코 보물 따라 걷는 일곱 빛깔 여정

한 가지 팁! 선물 수령은 고창읍성 관광안내소 또는
고창갯벌센터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저희는 나중에 다시 람사르습지 갈 때 선물 받으려고요

요즘 나에게 필요한 건 뭔가 특별하면서도 조용한 여행. 복잡한 도심을 떠나 자연과 역사, 감성이 모두 담긴 곳을 찾다가 친구와 함께 떠난 고창 스탬프 투어. 고창의 7곳 명소를 돌며 스탬프를 모으면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당일치기로 일정을 짜고 다녀왔어요. 몇 년 만에 다시 찾은 고창은 여전히 정겹고, 코스를 따라 도장을 하나하나 찍을 때마다 마음 한켠에 설렘이 피어났습니다.

여행 동선? 우리만의 감성 루트로 재정비

처음엔 검색해서 나온 ‘가장 효율적인 코스’대로 움직이려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마지막 코스를 운곡 람사르습지에서 힐링하며 마무리하고 싶어서, 조금 돌아가더라도 마음이 가는 순서로 루트를 짰습니다.

⊕ 우리가 다닌 순서

- 고창읍성 관광안내소 → 고창농악전수관
- 고창고인돌박물관 → 무장읍성 →
- 람사르고창갯벌센터 → 선운산 도립공원
- 운곡람사르습지자연생태공원



성벽 위에서 만난 고창의 첫인상

고창읍성 관광안내소

여행의 출발점은 고창읍성! 관광안내소에서 스탬프 북을 받아 첫 도장을 ‘꾹’ 찍었는데, 그 순간 진짜 여행이 시작된 느낌이 들었어요. 성벽을 따라 걷는 동안 고창 시내가 한눈에 펼쳐지고, 시원한 바람이 온몸을 감싸는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기념 사진 찍기에도 좋고, 한적하게 산책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첫 도장부터 벌써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의 흥을 오롯이 느끼다

고창농악전수관

두 번째는 고창농악전수관, 사실 농악이 이렇게 매력적인 문화인지 잘 몰랐는데, 직접 보고 들으며 완전 새롭게 느껴졌어요. 전시된 의상과 악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창농악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니 고창이 가진 전통의 자부심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두 번째 도장도 기분 좋게 꾱!

교과서 속 그 유물이 눈앞에

고창고인돌박물관

어릴 적 역사책에서 보던 고인돌, 진짜로 눈앞에 펼쳐졌어요. 선사시대 유물과 유적들이 잘 정리돼 있었고, 1층 '고인돌 미디어정원'도 사진 찍기 좋았어요. 아이들과 함께 오면 교육적으로도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외에선 열차 타고 유적을 돌아볼 수도 있지만, 저희는 당일치기라 패스했어요. 아쉬운 마음으로 세 번째 도장도 찍고 다음 코스로 이동!



고즈넉한 조선시대 분위기

무장읍성 방문자센터

무장읍성은 처음 가본 곳이었지만, 고창읍성만큼 잘 정비 되어있어 있었습니다. 한적하고 가볍게 한바퀴 돌기 좋은 곳이에요. 연못도 있고 사람도 많이 없어서 친구랑 "이런 곳에 카페 하나 있으면 매일 오고 싶다"는 말이 절로 나왔죠. 조선시대 성 안 마을 같은 느낌이 은근 운치 있었고, 걷기만 해도 마음이 정화되는 기분. 네 번째 도장도 차분하게 꾹.



바다 생태의 숨결을 느끼다

람사르고창갯벌센터

이곳은 다양한 해양 생물과 갯벌 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관이었어요. 원래 날씨가 좋았으면 갯벌에서 보는 일몰을 볼까도 고민했었지만, 날씨가 좋지 않아서 람사르습지를 마지막으로 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라고 할까요? 전기차 탐방이나 자전거 대여도 가능하다고 하니 가족 여행으로도 찰떡! 다섯 번째 도장을 찍으면서 자연과 생태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어요.

자연 속에서 잠시 멈추다

선운산

선운산은 원래 가을 단풍 여행지로만 기억했는데, 봄의 선운산도 진짜 매력적이더라고요. 숲길을 걸으며 사찰과 함께하는 산책이 너무 평화로웠고, 여섯 번째 도장은 맑은 공기와 함께 마음에도 꾹 찍힌 느낌이었어요.

파토치드로 마무리하는 힐링 여행

운곡람사르습지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코스! 우리가 제일 기대했던 운곡람사르습지. 여기는 수달열차를 타고 들어갈 수 있다는 점부터 벌써 설렘 포인트였어요. 매시 정각에 출발하는 열차를 타고 15분간 숲속을 달리는데, 창밖 초록빛 풍경에 바람까지 더해져 너무 평화롭고 힐링 됐어요. 열차에서 내린 후 숲길을 따라 홍보관까지 걷는 길도 마치 동화 속 숲길 같았고요. 정말 다시 오고 싶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탬프를 꾹! 도장을 다 찍었다는 그 뿌듯함, 말로 다 못 해요. 진짜 여행의 마침표.

여행을 마치며

고창 스탬프 투어는 단순한 도장 모으기를 넘어, 고창이라는 도시를 천천히 걸으며 느끼는 여행이었어요. 도장을 찍을 때마다 작지만 특별한 추억이 차곡차곡 쌓였고, 자연과 전통, 문화와 생태를 모두 아우른 시간이었죠. 단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차 없이는 다니기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스탬프 전용 셔틀이나 순환 대중교통이 생긴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멋진 여정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도시보다는 마을, 속도보다는 감성. 우리는 그렇게 고창에서 일곱 가지 보물을 만나고, 힐링과 함께 다시 또 오고 싶은 마음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갯벌센터가 아니라 운곡습지에서 마지막 도장을 찍었기에, 선물은 다음에 고창 갈 때 받기로 했어요. 그것도 또 하나의 즐거움이겠죠?

글·사진 송현

서해랑길 41, 42코스에서 즐기는
특별한 하이킹 프로그램

제4회 GOOUT SUPER HIKING 참가 후기

안녕하세요! 백패킹을 시작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 고창에서 열린 제4회 GOOUT SUPER HIKING(이하, 고아웃)에 참가했던 한 백패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박 2일 동안 고창의 산과 바다를 걸으며 느낀 솔직한 감상을 나눠보겠습니다.

1일차: 생각보다 힘난했던 고창 수리봉

"살방살방 걷는다"고 해서 쉬울 줄 알았는데, 웬걸요! 고창 수리봉 오르는 길이 생각보다 가팔랐습니다. "고창의 가리왕산 아니냐"는 농담까지 나올 정도였어요. 진짜 능선 길은 거의 없고 경사 높은 업힐이 계속됐거든요.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움직여서 그런지 하이킹 초반에는 앞으로 나아가질 못했어요. 또 하이킹 코스 중간 중간 도랑이나 계곡을 건너야 하는 구간들이 있어서 더 정체되더라고요. 하지만 덕분에 이 구간에서 사진을 많이 찍을 수 있었습니다.

전날 내린 비로 아침에 조금 흐리던 하늘이 조금씩 개이고, 나뭇잎들도 푸릇푸릇한 게 싱그럽고 너무 예뻤어요. 저는 이맘때의 산이 그렇게나 아름답더라고요.

심박수가 170-180까지 올랐지만 중간에 포기하기 싫어서 꾸역꾸역 올랐습니다. 오버페이스인 줄 알면서도 자존심 상해서 뒤처지는 건 싫어서 말이에요. 사진 찍을 때 빼고는 거의 쉬지 않고 계속 올랐는데, 지금 생각해도 제가 대견해요.

수리봉 정상에서 바라본 경치는 정말 멋있었습니다. 정상 높이에 비해 조망이 좋다는 게 이런 뜻이구나 싶더라고요. 5월의 신록과 전날 비로 촉촉해진 공기가 어우러져 완전 힐링이었어요. 예쁜 사진들 찍어준 동료들에게도 정말 고마웠습니다.

첫 번째 체크포인트에서의 특별한 경험

드디어 첫 CP에 도착했어요! 아침도 제대로 못 먹고 출발해서 배가 엄청 고팠거든요. "빨리 밥밥밥!" 하면서 하이킹했답니다.

첫 번째 체크포인트는 사찰이었는데, 여기서 절밥을 처음 먹어봤어요. 처음 먹어보는 절밥이 하이킹 후라 그런지 정말 꿀맛이었답니다. "밥 많이 주세요!" 하고 짹짜 굽어먹었어요.

날씨도 너무 예쁘고, 함께 간 분들이 여기저기서 재미 있게 드시는 모습도 보기 좋았어요. 고아웃 협찬사인 벤앤제리스에서 아이스크림도 주셨는데, 팔로우하면 무료였거든요! 산행 후 먹는 아이스크림의 맛을 모르는 분이 있다면 꼭 한번 경험해보시길 추천해요.

〈선운사〉





다채로운 코스의 재미

점심을 맛있게 먹고 다시 하이킹을 시작했어요. 마치 계곡 하이킹을 하는 것처럼 산길과 물길, 진흙길을 지나는 코스였는데, 정말 코스를 졸깃하게 잘 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 CP에 도착했을 때는 탄산음료가 정말 간절했어요. "제발 탄산 탄산 탄산" 노래를 부르며 도착했는데, 슬러시가 있었거든요! 콜라 맛 슬러시가 진짜 꿀맛이었습니다.

임도길 옆으로 펼쳐진 풍경들도 너무 평화롭고 예뻤어요. 중간에 아예 자리 깔고 쉬는 백패커분도 계셨는데, 그것마저도 낭만을 있는 그대로 즐길 줄 아는 모습으로 보였어요.

숙영지 도착과 저녁 시간

임도길을 다 걷고 나면 마을이 나와요. 숙영지가 있는 마을이었는데, "차량 서행!!!!" 표지판을 지나 오른쪽으로 꺽으면 드디어 숙영지 도착! 다들 환호해주시고 사진도 찍어주셨어요.

텐트는 일행들과 함께 브랜드 부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피칭했어요. 덕분에 이벤트 참석하기도 밥 먹기도 편했습니다.

2일차: 서해랑길의 진짜 매력

고아웃 2일차 아침이 밝았어요. 전날과는 다르게 너무나 맑고 예쁜 날씨였답니다! 기분까지 좋아지는 그런 맑고 예쁜 날씨였어요.

지난밤에 비도 좀 맞고 밤사이 생긴 텐트의 결로를 아스팔트 위에서 말려봤습니다. 사람들이 아스팔트 위에 텐트를 쭉 나열해 놓았는데, 그것 나름대로 알록달록 멋지더라고요!

평화로운 해안 트레킹

2일차 하이킹을 시작해 봅니다! 이날은 하이킹보다는 트레킹이라는 말이 더 어울렸어요. 갯벌 해안길을 따라서 5km 정도 걸었는데, 이게 진짜 고창의 매력이더라고요.

높은 건물 하나 없이 정말 고요하고 넓게 펼쳐진 풍경들과 살랑살랑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평화롭다'라는 수식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곳이 아닐까 싶었어요. 트레킹 코스를 따라서 백패커들이 쭉 걸어가는데, 그 모습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유채꽃도 한가득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사실 올해 유채꽃을 못 봤거든요? 고창에서 이렇게 예쁜 유채꽃밭을 만날 줄 몰랐는데 정말 예뻤어요.



감동적인 골인 지점

이제 정말 마지막이에요! 분명 힘들었는데, 끝난 게 너무 좋으면서도 아쉽더라고요. 고아웃 깃발들을 쭉 따라가면 골인 지점이 나와요.

운영진분들이 함께 환호도 해주시고 하이파이브도 해주셨어요! 진짜로 뭔가 멋진 일을 해낸 것 같잖아요! 백팩킹이 좋은 게,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하루하루가 제 성취로 이어진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뭔가 하나 해냈잖아요!

고아웃은 완주하면 기념 메달을 줍니다! 생각보다 메달이 묵직하고 예뻤어요. 시즌별로 다 모으고 싶게 만드는 매력이 있더라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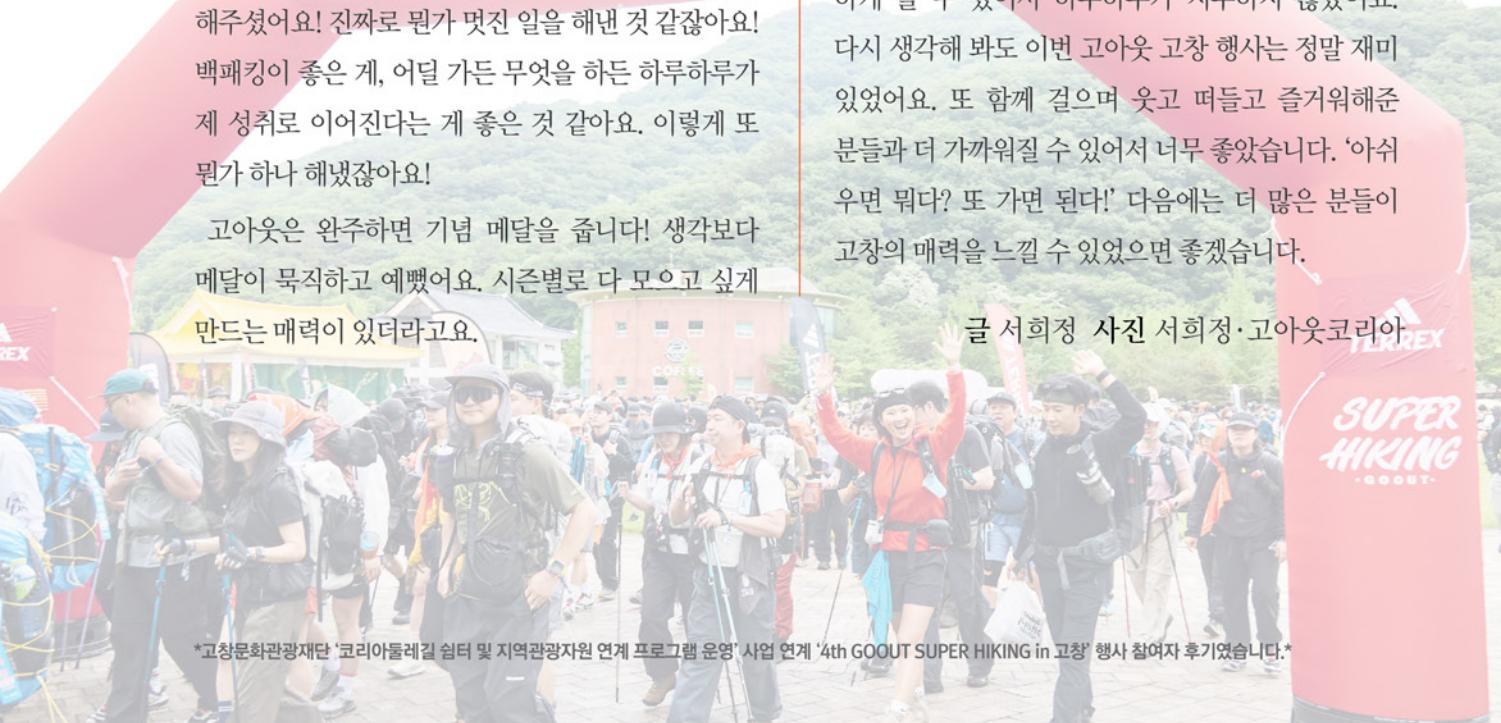


고창, 다시 오고 싶은 곳

분명 힘들었는데 끝나니 그립고 아쉬웠어요. 고창이 이렇게 매력적인 곳인 줄 몰랐거든요. 산도 좋고, 바다도 좋고, 음식도 맛있고! 고아웃 다녀와서 체지방률이 2%나 줄었는데, 고창의 맛있는 음식들을 그렇게 먹고도 체지방률이 줄었다는 건 그만큼 고창의 아름다움을 온몸으로 즐겼다는 뜻이겠죠?

무엇보다 서해랑길을 따라 걸으며 고창의 자연과 문화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단순히 산만 오르는 게 아니라 바다와 갯벌, 시골 풍경까지 다양하게 볼 수 있어서 하루하루가 지루하지 않았어요. 다시 생각해 봐도 이번 고아웃 고창 행사는 정말 재미 있었어요. 또 함께 걸으며 웃고 떠들고 즐거워해준 분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쉬우면 뭐다? 또 가면 된다!' 다음에는 더 많은 분들이 고창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글 서희정 사진 서희정·고아웃코리아



초록빛 치유, 고창한밤 여행기

지원금으로 떠난 1박 2일의 짐

어느날 ‘고창한 밤’이라는 지원 사업이 눈에 들어왔다. 여행 지원금을 최대 10만원까지 주는 사업! 정적인 곳에서 사색하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괜찮겠다 싶었다. 게다가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 촬영지로 유명한 청보리밭도 너무 궁금했다. 결론은 둘이서 1박 2일을 쉬는 듯 여행하는 듯 알차게 보냈다.

학원농장 청보리밭은 사람이 많은데도 조용하다. 바람에 청보리가 사각거리는 소리 외에는 다른 잡음이 없다. 게다가 온통 초록색이라 눈도 편하다. 초록 사이로 걷다 보면 어떻게 찍어도 화보가 된다. 오두막에 앉아서 눈을 좀 감고 있기도 했다.

분위기 있는 선운사. 여행 1박 2일 중 하루가 좀 흐렸는데 되려 운치가 있어서 기억에 남는다. 한참을 도란도란 걷고 훌가분한 마음으로 내려왔다. 꼭 청보리밭이 아니더라도 고창은 어딜 가나 초록색이라는 것을 선운사에서 깨달았다. 이곳에서는 매 순간이 초록색 배경이다.



고창은 의외로 현대식 건물들이 비례가 딱 떨어지게 예쁘다. 상하목장을 걷는데 벽돌 건물, 목조건물들이 예뻐서 힐링이었다. 목장 안 동물들은 다 웃고 있었는데 확실히 관리를 잘 해주시나 보다. 귀여운 양들이 기억에 남는다.

신선한 재료들로 음식을 만드는 상하 키친. 우리는 상하 햄 피자와, 고창 바지락 알리오 올리오를 주문했다. 햄이 정말 맛있어서 나오는 길에 하나 샀다. 그리고 알리오 올리오도 서울에서 먹는 파스타보다 훨씬 맛있다. 입가심으로는 상하목장 아이스크림까지. 이곳에서 나고 자라는 재료들로 만드는 신선한 음식들이라 확실히 다른 느낌이었다. 다음에 다시 고창에 오게 된다면 시간을 잘 맞춰서 공장 투어도 하고, 치즈나 햄 만드는 것도 참여해 보고 싶다.

그리고 고창읍성. 읍성 관광안내소는 서울처럼 딱딱한 느낌이 아니라서 좋았다. 외관만큼 내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정겨워서 기억에 남는다. 만약 고창에 한 번 더 올 기회가 생긴다면 고창읍성에서는 좀 더 오랜 시간을 머물고 싶다. 걷는 것을 좋아하는데 산책로가 아주 잘 되어있었다. 하늘로 이어진 벚꽃길도 참 예뻤다.

장어가격이 저렴한 것이 장점인 금단양만. 물론 저렴한 이유는 우리가 셀프로 구워야 하기 때문이다. 1kg을 주문했는데 사진에 보이는 양으로 세 번이나 구워서 먹었다. 양이 생각보다 많았고, 이렇게 통통한 장어는 처음 먹어볼 정도였다. 밑반찬은 평범하지만 야채는 엄청 신선하다. 굽는데 자신 있는 분들이라면 강력 추천한다.



〈금단양만〉

숙박은 마호네 펜션에서 했다. 마호네 펜션은 사장님의 친절하고 품 컨디션이 좋다는 평이 많아서 선택하게 되었는데 후기가 틀리지 않았다. 이불도 보송보송하고, 세세한 부분들까지 모두 깨끗해서 잠도 잘 잤다. 고창 특산품인 복분자 막걸리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다음 날에는 컵라면으로 해장을 했다. 어쩐지 내 집 같아 체크아웃하고 싶지가 않을 정도로 좋았다.

동학농민운동과 깊은 연이 있는 무장읍성. 고창읍성이 고즈넉하다면 무장읍성은 투박하다. 이곳 연못이 유명하다는데, 나는 연못보다는 읍성 자체의 분위기가 묘하니 좋았다. 그리고 늘 성벽을 볼 때마다 전율을 느낀다. 어떻게 저리 정교하게 쌓았을까. 일정하지 않은 벽돌 맞물림이 비장하고 신비롭게 느껴졌다.

운곡 람사르 습지에도 갔다. 생태공원 가는 길에 운곡 저수지를 길게 빙 둘러 가는데 반짝이는 게 엄청 예뻤다. 평소 잘 보지 못하는 동물들도 멀찍이서 볼 수 있었다. 특히 화산 폭발 후 마치 작은 주상절리처럼 구성된 산의 벽면이 기억에 남는다.

고창에서의 마지막 식사. 백반을 시키면 조기구이, 김치찌개, 반찬이 듬뿍 나온다. 나물 종류가 많아서 좋았고, 특히 미나리 무침과 미역무침이 기억에 남는다. 주변에서 사투리를 쓰는 것을 듣더니 친구가 명절에 시골에 온 것 같아 웃는다. 사장님도 그런 친구 마음을 아시는지 엄청 따뜻하게 대해주셨다.

유네스코로 지정된 고창의 일곱 장소를 방문해 보는 스템프 투어를 성황리에 마쳤다. 솔향 비누, 연꽃 파우치, 다녀온 일곱 장소가 담긴 연꽃 배지까지. 스템프 투어가 참 오랜만이고, 운 좋게 모두 종주할 수 있어서 기념사진도 남겼다. '고창한밤'이라는 지원 사업으로 우연히 고창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올해 들어 가장 힐링했던 여행이었다. 초록색의 도시를 오래도록 기억할 것이다.

글·사진 조민영



〈무장읍성〉



지역 공간을 소개합니다

선운미디어갤러리

고창 선운미디어갤러리는 기존의 세계유산도시 고창 사진전시관을 리모델링해 고창의 7가지 보물과 치유 자원을 주제로 한 실감형 미디어아트와 전시가 어우러진 치유문화 거점공간이다.

선운미디어갤러리 내부에서는 세계적인 유네스코 7대 보물과 고창의 다양한 유·무형 자산이 디지털 미디어로 구현되어 있고, 외면에는 고창 홍보영상을 활용한 비디오 아트가 상영된다. 좌·우측 외벽에 펼쳐진 문수사·맹종죽림 벽화는 방문객들이 자유롭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으로 구성되어 있다. 후면의 고창 갯벌 플랜트월은 생태적 감성을 새로운 예술적 경험으로 제시했다.

선운사는 고창의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선운미디어갤러리는 진입로에 위치해 ‘노란 지붕’으로 관광객들의 이목을 끌어 랜드마크로 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158-5

● 운영시간: 10:00~17:00

● 휴무일: 매주 월요일 휴관

● 문의전화: 063-560-8685





품

고창 예술거리 한가운데 자리한 '품'은 지역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방문객들에게는 특별한 예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 거점 공간이다. 지역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창작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화실 공간을 대여한다. 다양한 원데이클래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누구나 쉽게 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리모델링을 통해 새롭게 단장된 '품'은 고창 예술거리를 둘러보는 방문객들에게 지역 예술가와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중거리당신로 147-4

● 운영시간: 치유문화도시 고창 누리집

(<https://gccc23.co.kr/>) 실시간 현황 확인

● 문의전화: 070-4175-6805



고창 서해랑 쉼터

서해랑길은 전남 해남 땅끝탑에서 인천 강화를 연결하는 109개 코스, 1,800km의 걷기 여행길로, 서쪽(西)의 바다(파도)와 함께(랑) 걷는 길을 의미한다. 서해랑길을 따라 천천히 걷다보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드넓은 갯벌과 황홀한 일몰, 종교와 문물교류의 역사를 만날 수 있다. 전북 고창은 41, 42, 43코스 와 고창 서해랑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심원면 두어 1길 55-26 고창 갯벌 생태휴게실(람사르고창갯벌센터 내)

● 운영시간: 09:00 ~ 18:00

● 휴무일: 연중무휴

● 문의전화: 070-4914-7200

돌빛마루, 치유문화 놀이터

돌빛마루는 고창 로컬크리에이터들의 창작품이 만나는 특별한 공간이며, 개성 넘치는 작품들을 전시하고 직접 구매할 수 있다. 로컬크리에이터들에게는 자신의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무대를, 방문객들에게는 특별한 기념품과 선물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치유문화 놀이터는 문화예술가들이 모여 소통하고 협력하는 공간이다. 회의 및 세미나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어 다양한 문화예술 관련 모임의 공간으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동리로 79
(돌빛마루)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남정 7길 7
(치유문화놀이터)

● 운영시간: 치유문화도시 고창 누리집
(<https://gccc23.co.kr/>) 실시간 현황 확인

● 문의전화: 070-4175-6805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관

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 세계기록유산 무장포고문 등 유물전시는 물론 디지털 홍보영상, OX 퀴즈 모니터, 포토 존, 해설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 체험 콘텐츠도 마련되어 있는 공간이다. 동학농민혁명이 민주주의 출발에 끼친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지역 정체성과 상징성을 끌어 올릴 수 있는 곳이며 기념관 옥상에는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선쉐이드 시설과 벤치 기능을 갖춘 화단을 조성해 지역주민과 방문객 누구나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개방형 휴식공간으로 꾸며졌다.

●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52

● 운영시간: 10:00 ~ 17:00

● 휴무일: 매년 1월1일, 매주 월요일

● 문의전화: 063-560-2444



2025 고창문화관광재단 업무협약

상하농원 / 고창 보건소 / 석정웰파크요양병원 / 공주문화관광재단 / 청년단체



고창문화관광재단 - 고창군보건소
문화·보건 복지 서비스 연계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1. 보건소와 업무협약

고창문화관광재단과 고창 보건소가 4월 14일 보건소에서 치유문화·보건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지역 내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은 ‘문화·보건 복지 서비스 연계 협력 사업 발굴 및 운영’, ‘문화예술·교육·정신건강 상담 등 연계 상호 홍보 협력’, ‘양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사업 네트워크 및 인프라 교류’ 등이다. 더불어, 주민들의 마음 건강을 위해 ‘찾아가는 치유문화 배달’을 문화·보건적 접근 방식으로 운영하여 일상 속 회복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2. 상하농원과 치유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고창문화관광재단과 상하농원은 치유문화 기반 문화예술 콘텐츠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3월 20일 체결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공간기반 문화예술행사 연계 추진’, ‘주민과 관광객의 치유문화예술 향유 증진’, ‘양 기관 사업에 대한 상호 홍보 및 지원’ 등 상하농원이 보유한 공간 및 콘텐츠 등 다양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치유문화도시 사업과 연계한 고창형 치유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힘쓸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상하농원의 공유오피스 거점공간을 활용하여 고창을 찾는 워케이션 참여자에게 고창에서의 특별한 치유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3. 석정웰파크요양병원과 치유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고창문화관광재단과 석정웰파크요양병원이 4월 21일 치유문화 프로그램 모델 개발 및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어르신 대상 치유문화·웰다잉 연계 협력사업 발굴 및 운영', '초고령화 사회 대응 치유문화예술 프로그램 모델 개발'을 위해 두 기관이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석정웰파크요양병원이 보유한 다양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어르신 대상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치유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노령인구, 치매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사업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고창문화관광재단 - 공주문화관광재단
문화·관광 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4. 공주문화관광재단과 상호발전 업무협약

고창문화관광재단과 공주문화관광재단이 4월 17일 공동 콘텐츠 개발 및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은 '양 기관 사업에 대한 상호 홍보 및 지원',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사업 네트워크 및 인프라 교류', '기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상호 협력' 등이다. 양 기관의 특화된 문화자원을 연계하여 문화예술의 가치를 확산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5. 청년단체와 청년문화동맹 업무협약

고창군 내 5개 청년단체와 고창문화관광재단이 5월 15일 '청년문화동행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청년들의 문화기획 참여를 확대하고, '고창군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청년정책의 연계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참여단체는 청년정책협의체, 청년벤처스, 4-H연합회, 청년회의소, 애향청년회와 고창문화관광재단이다. 이들은 청년 주도의 문화기획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운영하며, 고창의 역사와 자연, 지역자산을 활용한 청년 기획·제작 콘텐츠의 전시와 공유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주 보통의 하루에 특별함을 더하다

동리시네마 문화마실

문화소외계층과 함께하는
따뜻한 영화 여행

영화관에서 만나는 작은 기적

스크린 속 이야기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동리시네마에서 펼쳐지는 '문화마실'에서 말이죠. 2025년, 고창문화도시센터가 선보이는 이 특별한 프로그램은 단순한 영화 관람을 넘어 '무해력(無害力)'이 가득한 치유의 시간을 선사합니다. "문화소외계층도 영화관람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 믿음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지역사회에 큰 울림을 만들고 있습니다.

1,000명과 함께 누리는 문화마실

문화마실이라는 이름이 주는 따뜻함처럼, 이 프로그램은 고창군 내 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 문화소외계층 총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2025년 4월부터 10월까지, 상·하반기에 나눠져 펼쳐지는 이 특별한 여행은 단순한 관람을 넘어선 고창문화도시센터·동리시네마·지역 복지기관들이 상생·협력하여 진행합니다. 문화마실 참여 단체에게는 영화관 대관과 함께 팝콘과 음료 등 다과가 제공됩니다. 또한 배리어프리 영화상영도 가능해 시각 및 청각 장애인도 함께 즐길 수 있으며, 교통이 불편한 단체를 위한 버스 지원도 협의를 통해 제공됩니다.





지역사회에 퍼져나가는 변화

"오늘 하루 괜찮았어?"라는 일상적 인사가 "오늘 정말 특별했어!"로 바뀌는 순간. 동리시네마 문화마실은 문화소외계층에게 '아주 보통의 하루(아보하)'를 넘어선 값진 경험을 선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조건에 해당하는 지역의 다양한 분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지역 내 문화격차 해소와 치유문화 생활화를 통해 고창이 진정한 문화도시로 나아가는 디딤돌 역할을 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많은 분들의 신청 부탁드립니다.

문의 및 신청

신청기간: 2025년 4월 24일(목) ~ 9월 30일(화)

신청방법: 참여신청서 제출 또는 네이버폼 작성

문의: 070-4175-6818 / summit789@gctf.or.kr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WHERE & WHEN

장소: 동리시네마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판소리길 20 동리국악당 지하)

기간: 2025년 4월~10월

(상반기 4~6월 / 하반기 9~11월)

대상: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단체, 사회복지
기관, 소규모 지역학교, 마을회 등

신청: 2025년 9월 30일까지
(네이버폼 또는 이메일 접수)

10~31명: 동리시네마 2관

32~58명: 동리시네마 1관

59~89명: 1관+2관 동시 대관

글·사진 주민협력팀 김민찬



그래서 예술학교 7가지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품은 고창의 특별한 문화예술배움터

고창문화예술배움터 × 세계유산 워킹그룹 ‘그리고’



◀ 그래서예술학교
포스터

문화도시 조성사업 X 세계유산 ‘그래서예술학교’

고창문화도시센터에서는 지역의 문화자산을 활용해 지역 스스로 도시의 문화환경을 기획하고, 도시의 브랜드를 창출하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는 고창의 문화적 자신이자, 주민들의 자긍심인 고창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활용한 고창형 치유문화예술교육 ‘그래서예술학교’를 운영한다.

‘그래서예술학교’는 세계유산을 단순히 홍보의 수단이나, 보존·보호의 대상으로만 여기지 않고 주민들의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접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의 문화적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자 한다.

탐구와 실천을 잇는 워킹그룹 ‘그리고’

‘그래서예술학교’의 확장과 실행을 위해 세계유산 및 문화예술교육 관계자로 구성된 워킹그룹 ‘그리고’를 함께 운영 중이다.

‘그리고’는 단순한 학습 모임이나 실무 협의체를 넘어, 고창의 세계유산과 문화예술교육을 연결하는 자율적 학습 공동체다. 문화예술교육자, 세계유산 관련 종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16명의 참여자들과 함께 학습과정을 공동 설계하여 매월 2회 정기모임을 갖는다.

〈재단세미나실〉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관〉

‘그리고’라는 이름에 담긴 뜻

워킹그룹의 이름은 왜 ‘그리고’일까? 프로그램을 기획한 담당자는 ‘그리고’는 세계유산과 문화예술교육, 탐구와 실천, 개인과 공동체를 이어주는 접속사이자 동시에 워킹그룹 구성원이 함께 세계유산과 문화예술교육이 연결된 미래의 그림을 그려나간다는 뜻도 담고 있다.”라고 설명한다.

앞의 내용을 확장하고 새로운 의미를 더하여 같이 하나의 그림을 그려나다는 표현처럼, 워킹그룹 ‘그리고’는 새로운 연결과 확장을 만들어가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참여자들은 각자의 현장에서 축적해온 경험을 공유하고, 지역에서 가능한 실천 방식에 대해 함께 고민한다. 개인의 경험은 공동의 지혜로 확장되고, 학습은 기획과 실험으로 이어가며 고창의 세계유산과 문화예술을 새롭게 연결해나가고 있다.

‘그래서예술학교’와 워킹그룹 ‘그리고’의 연결

‘그래서예술학교’는 고창의 7가지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기반으로 탐구, 창작, 실천을 잇는 문화예술교육 배움터다. 2025년에는 총 12개의 정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며, 이 과정에 워킹그룹 ‘그리고’가 긴밀히 연계된다.

워킹그룹 ‘그리고’는 단지 배움에 그치지 않는다. 공동학습을 통해 도출된 아이디어는 정규 프로그램으로 실현될 예정이며, 세계유산을 주제로 한 교육 콘텐츠 기획에도 직접 참여하고 있다.

관계망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문화 생태계

워킹그룹 ‘그리고’의 또 다른 성과는 세계유산과 문화예술교육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지역 내 관계망이다. 서로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던 참여자들이 정보를 교류하고, 협력하며 유기적인 문화 생태계의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

한 참여자는 “이전엔 흩어져 있던 세계유산 활동이 이제는 연결되고 있어요. 시너지가 눈에 띄게 커졌어요”라고 전했다. 워킹그룹 ‘그리고’는 느슨하지만 단단한 연대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교육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

12월까지 이어질 실험, 그 이후

총 14회차로 구성된 워킹그룹 ‘그리고’는 올해 12월 운영 공유회를 끝으로 2025년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는 끝이 아닌 전환점으로 2026년 ‘그래서예술학교’의 지속 가능성과 정체성을 함께 설계해 나갈 계획이다.

함께 그리고, 새롭게

고창의 소중한 세계유산이 지역민들의 일상 속에서 살아 숨 쉬는 문화예술교육으로 재탄생하는 과정. 워킹그룹 ‘그리고’가 함께 그려가는 특별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글·사진 문화진흥팀 이승우



2025 공예주간 '인생공예, 일상공예'

고창 전통예술체험 마을에서 만난 특별한 공예 이야기

지난 5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고창군 전통예술체험마을에서 고창문화관광재단·고창문화도시센터가 운영하는 특별한 공예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 공예주간 기획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열린 '인생공예, 일상공예' 행사는 "대대손손 이어진 고창의 공예, 일상의 가치를 감각하는 공예"라는 주제 아래 고창의 풍부한 공예 문화를 선보이며 지역민과 관광객 총 1,200여 명이 참여하며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장인의 숨결과 일상의 아름다움이 한자리에

이번 행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었습니다. '인생공예: 기억하는 공간'에서는 고창의 공예장인들이 평생에 걸쳐 갈고닦은 기술과 지혜가 담긴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윤도장 김희수,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자수장 박미애, 사기장 라희술, 천연염색 명인 권애란 등 고창을 대표하는 장인들의 혼이 깃든 작품들이 전시되어 관람객들의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한편 '일상공예: 감각하는 공간'에서는 김유진, 박혜숙, 송윤희, 이미정, 이선화, 임애진 6명의 지역 공예가들이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생활 속 공예품들을 선보였습니다. 현대 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여낸 공예작품들은 "공예가 우리 일상과 이렇게 가까이 있었구나"라는 새로운 깨달음을 선사했습니다.

직접 만들고 느끼는 공예의 즐거움

전시와 함께 진행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은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총 11개의 체험 프로그램에 약 300명이 참여하며 공예의 매력을 직접 체감했습니다.

가장 인기가 높았던 프로그램은 단연 마스터클래스였습니다. 마스터클래스는 '무늬인견 사선 스카프 염색(천연염색 명인 권애란)', '전통자수 상보 수놓기(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자수장 박미애)', '나만의 윤도 만들기(국가무형유산 윤도장 김희수)'의 3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윤도장 김희수 선생님과 함께하는 '나만의 윤도 만들기' 체험은 접수 시작과 동시에 마감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한옥 안의 조용한 공간에서 김희수 선생님이 직접 윤도 제작 과정을 시연하시는 모습은 참여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6세 이상 참여 가능한 이 프로그램에서 한 어머니는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참여한 후 "아이와 함께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의 공예품을 직접 만들어보면서 전통의 소중함을 느꼈다"며 "체험이 끝난 후에도 윤도에 대해 더 깊은 궁금증이 생겼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일반 공예체험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총 6개 프로그램(보자기 아트, 패브릭 가방 만들기, 큐빅 팔찌 만들기, 바다 비누 만들기, 부채 전통 민화 체험, 한지공예 무드등 만들기)이 3일간 운영되었습니다.



가족 문화예술교육 '가가호호 예술놀이터'

특별히 토요일에는 2025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가가호호(家加好)'의 홍보형 기획사업인 '가가호호 예술놀이터'가 함께 운영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족 단위 참여자를 대상으로 핸드메이드 패브릭 텁블러 가방 만들기와 아로마 향기주머니 만들기를 원데이클래스 형태로 진행하였습니다. 현장에서는 "아이들이 집중해서 끝까지 참여했다", "가족과 함께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 좋았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으며,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간 협동과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감정을 표현하고 긍정적 대화의 시간을 갖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전통이 살아숨쉬는 공연과 마켓

체험과 전시 외에도 다양한 부대행사들이 행사의 재미를 더했습니다. 고창농악보존회의 농악 공연은 이번 행사의 묘미였습니다. 메인광장에서 펼치는 역동적인 공연은 한옥과 어우러져 장관을 이뤘으며 전통 깃발과 함께 펼쳐지는 웅장한 농악 소리가 행사장 전체에 울려 퍼지며 방문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농악 공연을 시작으로 지역 예술인들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진 색소폰, 오카리나, 밴드,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연일 메인광장을 가득 채웠고 마지막 날에는 소리꾼과 고수가 함께하는 판소리 공연이 열려 행사의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공예마켓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만든 수공예품과 농특산품들이 판매되었습니다. 고창군 전통예술체험마을의 아름다운 한옥을 배경으로 메인광장에 설치된 흰색 파라솔 아래에는 한국미술협회 고창지부를 비롯해 총 10개 매대가 운영되었습니다. 사선텐센스 카프, 자개거울, 목공예작품, 네잎클로버 쉐이커부터 땅콩빵, 모시송편, 수박주스까지 다양한 상품들이 선보였으며, 색색의 빈백 소파가 놓인 휴게공간에서는 방문객들이 편안하게 쉬면서 행사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이벤트로 더욱 특별하고 알차게

'스탬프 투어'는 참여자들이 행사장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운 재미 있는 이벤트였습니다. 고창문화관광재단 인스타그램 팔로우, 전시 관람, 체험 참여, 한복 체험, 마켓 이용, 만족도 조사 참여 등의 미션을 수행하며 스팸프를 모은 참가자들에게는 치유문화도시이자 유네스코 7대유산을 보유한 고창을 알리는 홍보부스에서 고창을 상징한 특별한 기념품이 제공되어 행사의 각각의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도를 높였습니다.

한복 무료 대여와 즉석 사진인화 촬영 이벤트인 '한복 입는 날'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80대 어르신들의 단체 참여였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예쁜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은 한 어르신은 "예쁜 한복을 입고 사진찍을 기회가 얼마나 되겠어? 한복도 너무 예쁘고 그런 옷을 입은 우리도 너무 예쁘고"라며 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누구나 다함께 행사를 즐기는 모습들이 행사를 준비한 관계자들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특별한 배려, 따뜻한 마음

이번 행사에서 특히 눈에 띈 것은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첫날에는 장애인 20명을 대상으로 한 '조각보 카드 만들기와 보자기 아트' 특별 체험이 진행되었습니다. 김유진 작가가 진행한 이 프로그램은 "모든 사람이 공예의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자"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장애가 있어도 공예의 아름다움을 함께 알아가며 문화소외지역인 고창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공예를 통해 다함께 어우러지는 문화현장이었습니다.

앞으로의 기대와 다짐

이번 '인생공예, 일상공예' 행사는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를 넘어 고창 지역 공예문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전통 장인들의 깊이 있는 기예와 현대 공예가들의 창의적 해석이 만나면서, 공예가 박물관이나 전시장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숨 쉬는 문화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다양한 연령대의 참여자들이 함께 어우러진 현장에서는 전통문화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손자가, 어머니와 딸이 함께 앉아 같은 작업을 하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들은 공예가 단순히 물건을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잇는 소통의 매개체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고창문화관광재단은 이번 행사를 바탕으로 지역 공예문화의 지속적인 발전과 확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글 문화사업팀 한지혜 사진 이지훈, 주민협력팀 김민찬

공예가 특별한 날에만 만나는 문화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언제든 접할 수 있는 친근한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만들어낸 '인생공예, 일상공예'의 아름다운 순간들이 각자의 일상 속에서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고창의 공예문화와 함께하는 더 많은 기회들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고창문화관광재단 세계유산음악산책

라벤더 향기에 울려 퍼진 팝페라의 선율

라벤더정원 음악회 in 상하농원

푸른 들녘이 펼쳐진 상하농원 파마스빌리지에 특별한 선율이 흘렀다. 지난 6월 28일, '라벤더 정원 음악회 in 상하농원'이라는 이름으로 팝페라 양상을 '프로스트'가 고창 땅에 첫 발을 내딛었다.

고창문화관광재단이 새롭게 선보이는 '세계유산 음악산책' 프로그램의 첫 번째 무대였다. 단순한 관람형 관광에서 벗어나 음악과 자연, 문화가 어우러진 체류형 콘텐츠로 고창 관광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젖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연 속에서 만난 클래식의 감동

시원한 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고창의 푸른 들녘을 배경으로 한 이번 공연은 그야말로 자연과 예술이 만나는 완벽한 무대였다. 300여 명의 관객들이 함께한 이 날 공연장에는 고창군민은 물론 상하농원 투숙객, 타 지역에서 찾아온 관광객들까지 온 가족이 함께 모였다.

무대에 오른 팝페라 양상을 '프로스트'는 소프라노 안성민 단장을 중심으로 8명의 성악가들이 구성한 실력파 팀이다. 독일어로 '건배' 또는 '축배'를 뜻하는 '프로스트'라는 이름처럼, 이들은 관객들에게 음악이라는 특별한 축배를 건네며 한 시간 넘게 무대를 빛냈다.

공연은 영화음악 '레이디스 인 라벤더', '라벤더스 블루 딜리딜리'로 문을 열었다. 라벤더를 콘셉트로 한 음악회 타이틀에 맞춰 선곡된 오프닝이었다. 이어 뮤지컬 넘버, 영화 OST, 가요, 이탈리아 칸초네 등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클래식 명곡들이 줄을 이었다.





소통하는 무대, 감동하는 관객

이번 공연의 가장 큰 특징은 관객과의 소통이었다. 안성민 단장은 각 파트가 시작할 때마다 곡에 얹힌 흥미로운 에피소드를 들려주며 관객들의 이해를 도왔다. 딱딱할 수 있는 클래식 공연을 친근하고 재미있게 풀어낸 것이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어린 관객들의 반응이었다. 클래식 베이스의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의자에서 일어나 선율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음악이 장르를 초월해 모든 연령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순간이었다.

"아이들은 장르와 상관없이 음악을 느끼고 즐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공연을 통해 고창의 높은 예술적 수준과 관객들의 훌륭한 감상 태도를 엿볼 수 있었어요."

안성민 단장의 말처럼, 이날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은 고창의 문화적 역량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고창, 음악인들에게는 성지와 같은 곳

공연 후 만난 안성민 단장은 고창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고창은 음악과 공연예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성지와 같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리 신재효, 진채선과 같은 걸출한 음악인들의 숨결이 흐르는 이곳에서 공연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그는 특히 고창의 예술적 자원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다. "고창의 모양성은 울림이 좋아 야외 공연장으로도 훌륭합니다. 수려한 자연과 동리의 숨결이 살아있는 장소에서 공연하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죠."



K-클래식의 가능성은 보여주다

팝페라 '프로스트'는 단순히 한 번의 공연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들은 중국 등 해외에서도 활발한 공연 활동을 펼치며 K-클래식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중국에서 공연을 해보면 우리나라 음악에 대한 선호도와 호감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악가의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K-클래식도 K-POP 못지 않게 세계적인 인지도를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들은 8월에 남이섬에서 한·중 교류 음악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고창에서도 모양성에서의 재공연을 약속했다.

문화관광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다

이번 '라벤더 정원 음악회'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고창 문화관광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생물권보전지역이라는 고창의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음악과 결합해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만들어낸 것이다.

고창문화관광재단과 상하농원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이번 프로그램은 정적인 유산 관람에서 벗어나 음악과 자연, 문화가 융합된 체험형 콘텐츠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관광객들의 체류 시간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속 가능한 문화관광 콘텐츠로의 발전

'세계유산 음악산책'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다. 소규모 고품격 공연을 통해 고창만의 차별화된 관광 브랜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공연의 성공은 200명 이상의 관람객 참여, 미디어 콘텐츠 제작 등 애초 목표를 달성하며 향후 정기적인 문화관광 연계 행사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라벤더의 향기로 울려 퍼진 팝페라의 선율은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넘어 마음의 위안과 예술적 영감을 선사했다. '프로스트'가 건넨 이 작은 축배는 고창의 문화적 품격을 높이는 또 하나의 감동으로 오래 기억 될 것이다.

고창은 이제 단순히 볼거리를 제공하는 관광지가 아니라,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 쉬는 체험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세계유산 음악산책'이 열어젖힌 새로운 문화관광의 지평이 앞으로도 계속 확장되기를 기대 한다.

글 관광팀 이광민 사진 주민협력팀 김민찬



우리의 일상을 예술로 채우는 시간

마음충전 버스킹

고창문화도시센터는 고창의 치유문화 생활권 구축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중 유네스코 세계유산 거점공간인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관 옥상 정원 등 주변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의 야외 문화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음충전 버스킹'을 운영하고 있다. 초여름부터 가을까지 전봉준장군 동상공원 일원에서 펼쳐지는 공연은 우리의 일상에 예술을 충전시키는 소중한 시간을 제공한다.

6월 16일 판소리를 시작으로 7월 1일 핸드팬 연주와 10월부터는 클래식, 색소폰 앙상블과 국악 공연이 기다리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공연들이 그저 보여지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퇴근 후 산책하던 주민, 아이와 함께 휴식공간을 찾은 가족, 운동을 마치고 돌아가는 이들이 자연스럽게 멈물다 가는 공간이 된다. 예술이 삶 속으로 걸어 들어오는 순간들이다.



〈전봉준장군 동상공원〉

전봉준장군 동상과 분수대, 조명이 어우러진 공간은 그 자체로 특별한 무대가 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거점공간에서 펼쳐지는 공연이라는 의미는 더욱 깊다. 이곳에서 울려 퍼지는 선율들이 고창의 새로운 문화적 풍경을 그려가고 있다.

글 문화진흥팀 최은성 사진 주민협력팀 김민찬



뭐?!

고창에서 여행하면 여행 경비도 준다고?



“고창 여행하고 경비 지원받는” 완벽한 방법

고창보내는 1박 2일

여행경비지원

고창한밤



‘고창에서 보내는 1박 2일’ 고창한밤 여행 경비를 지원해드립니다.

참가방법

①여행일정 공유 → ②여행 → ③정산신청 ※정산 신청까지 완료해야 경비 지원(선착순)

사업대상

고창 관외 거주하는 관광객 누구나

지원내용

1박 2일 이상 고창을 여행하는 팀에 한하여 여행경비(최대 10만원) 지원

신청방법

추후 고창문화관광재단 공지사항 또는 SNS(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지원일정

회차	여행일정 공유기간	여행일자	지원규모
6회차	2025. 8. 18.(월) ~ 9. 27.(토)	2025. 9. 1. ~ 30.	20팀
7회차	2025. 9. 15.(월) ~ 10. 28.(화)	2025. 10. 1. ~ 31.	20팀
8회차	2025. 10. 17.(금) ~ 11. 27.(목)	2025. 11. 1. ~ 30.	20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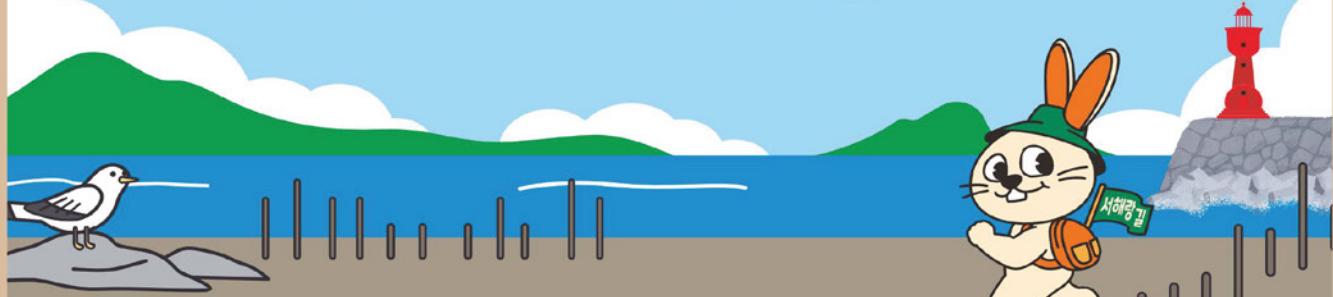
문의 : 070-4914-1603 | 제출처 : @고창문화관광재단 | 고창문화관광재단



고창 서해랑길 걷기 인증 이벤트



고창한테 반했길 in 서해랑길



참여대상 서해랑길 41-43 코스 중 1개 이상 완주자

참여기준 두루누비 앱 기준 '총 소요시간 3시간 이상' + '완주' 시 인정

운영기간 2025. 6. 11.(수)~11. 30.(일)/상품 소진 시 조기종료

※운영기간 내 걷기 인증 시 참여가능

참여방법

- 1 서해랑길 41-43코스 방문
※걷기 시작, 종료 시 참여자 얼굴과 배경이 함께 나온 사진 촬영
- 2 두루누비 앱 설치 후 '따라가기' 이용 걷기 여행
- 3 1개 코스 이상 완주 후 상품 수령처 방문
※상품 수령처 : 선운산 관광안내소(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158-4)
운영시간 | 10:00~17:00/연중무휴(추석 전날/당일 휴무)
- 4 귀여운 배지 획득! ※1인 1회 참여 가능



고창문화관광재단 관광팀 ☎ 070-4914-7200

@고창문화관광재단



문화체육관광부



'인생공예, 일상공예'

2025.05.22. - 05.25. 고창군 전통예술체험마을

소식지(고창! 문화를 읽는 창)은 우리 지역의 문화를 함께 그려나가는 새로운 창(窓)을 말합니다.
지역의 다양한 문화이슈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새로 쓰는 고창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홈페이지 <http://www.gctf.or.kr/>

블로그 <https://blog.naver.com/gctf1110>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gochang_gctf/